

중업 위기에 빠진 금호타이어, 노조는 강경일변도 왜?

해묵은 '노노갈등'… 회생 걸림돌

PD·NL계열 선명성 경쟁… 자금 수혈 차질

금호타이어 노동조합이 임금 삭감에 반발하며 구조조정 등으로 재출을 거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채권단의 신규 자금 수혈도 차질을 빚고 있다. 채권단은 노조의 등으로서 제출을 전제 조건으로 1천억원 규모의 신규자금 지원과 3천만달러 한도의 신용장을 개설해준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노조는 한발 더 나아가 오너와 채권단을 겨냥해 상경투쟁에 돌입할 작정이다. 사측이 제시한 구조조정 안 철회와 체불 임금의 조속 지급을 촉구하기 위해 19일 서울 본사에서 실력행사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워크아웃이 진행 중인 금호타이어 노조에는 현 집행부가 속한 '현장의 힘'(PD계열)과 '민노회'(민주노동자회·NL계열)라는 두 개의 조직이

노노갈등은 오히려 고조되고 있다.

특히 노조는 '정리하고 대신 상

여금 삭감'이라는 고통분담 차원의 사측 구조조정 수정안마저 거부했다. 이는 지난 10일 기자회견에서 밝힌 "인원 구조조정이 철회된다면 구성원 모두가 함께 살기 위한 고뇌를 함께 하겠다"는 약속을 뒤집은 것이다.

이처럼 금호타이어 노조가 강경 일변도로 일관하는 이유는 뭘까.

노조는 '조합원들의 생존권과 고

용 위험 때문'이라고 주장하지만,

노동계 안팎에서는 노조 내부의 해

게모니(주도권) 다툼이 또 다른 원

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노동계에 따르면 금호타이어 노

조에는 현 집행부가 속한 '현장의

힘'(PD계열)과 '민노회'(민주노동

자회·NL계열)라는 두 개의 조직이

있다.

이들은 사사건건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심지어 집행부 탄핵도 불

사했다.

지난해 10월 현 집행부가 임금 동결 등 임금협상에 동의하자 민노회 소속의 일부 노조원들이 정부위(정리하고 철폐·명예회복·책임자 처벌을 위한 투쟁위원회)를 구성해 '노조 임원 총사퇴'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에 따라 10월말 불신임 투표가 실시됐고 투표 결과 3분의 2 찬성에 끝마쳐 현 집행부는 재신임을 받았다. 하지만 탄핵 찬성이 62. 96%에 달해 현 집행부는 추진 동력을 상실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처럼 경제가 심하나보니 이번 워크아웃 사태 속에서도 현 집행부는 사측과 채권단의 구조조정에 협력하면 자칫 어용으로 몰릴 우려가 높다는 점을 의식하는 분위기다. 회

사의 현실을 직시하기보다는 주도

권을 놓고 두 조직으로 나뉘어 경제하고 다투다보니 강성으로 치닫고 있다는 관측이다.

한 노조원은 "회사가 위기에 빠졌다는 점에는 대부분 공감하고 있다"며 "예전처럼 노조가 벼여 뭔가 얻을 수 있다면 모르지만 그게 아니라면 노사가 머리를 맞대어 스스로 회생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노조원은 "두 달동안 임금을 받지 못하다보니 카드빚만 불어나고 있다"며 조속한 사태 해결을 바랐다.

이에 대해 회사측 관계자는 "인원 감축도 안되고 임금 삭감도 안된다면 어떻게 하자는 것인가"며 "또 다시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잘못된 관행을 되풀이한다면 채권단은 물론 시장에서도 실망과 조소를 보낼 것이다"고 답답해했다.

워크아웃 사태 속에서도 현 집행부는 시측과 채권단의 구조조정에 협력하면 자칫 어용으로 몰릴 우려가 높다는 점을 의식하는 분위기다. 회

사의 현실을 직시하기보다는 주도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삼성 휴대전화 북미시장 석권

작년 4천850만대 공급… 점유율 25.7% 1위 올라

삼성전자가 지난 1997년 북미 휴대 전화 시장 진출 이후 13년 만에 연간 기준으로 1위 자리에 올랐다. 16일 시장조사기관 SA(STRATEGY ANALYTICS)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지난해 북미 시장에서 사용 최대인 4천 850만대의 휴대전화를 출하하면서

25.7%의 시장 점유율을 기록했다.

이는 분기 기준이 아닌 연간 기준으로는 북미 시장의 맹주였던 모토로라는 차지하고 처음으로 1위 자리에 오른 것으로, 지난 1997년 미국 시장 진출 이후 13년 만이다.

지난 2008년 3천990만대의 출하량

과 22.1%의 시장 점유율로 1위 자리

를 지켰던 모토로라는 지난해에는 3천30만대, 16.1%의 점유율로 삼성은 물론 LG전자(3천950만대, 20.9%)에

개도 뒤져 3위로 내려앉았다.

삼성전자가 북미 시장에서 연간 기준 출하량 4천만대를 넘어서고 시장 점유율 25% 이상을 기록한 것도 이번이 처음이다.

/연합뉴스

삼성硏 "금리 1%p 오르면 연 이자부담 7조원"

삼성경제연구소는 금리가 1%p포인트 상승하면 가계와 기업의 연간 이자부담이 6조9천억원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이 연구소 이태환 수석연구원은 16일 "신(新)3고'와 한국경제' 보고서에서 한국은행 자료를 분석해 금리 상승 시 예상되는 가계와 기업의 이자부담 증가분을 이같이 계산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금리가 1%p포인트

오를 경우 가계는 연간 이자부담이 6조5천억원 늘어나고 이자수입이 5조2천억원 들어나 순 이자부담이 1조3천억원 증가할 것으로 분석됐다.

기업은 이자부담이 6조6천억원 늘어나는 반면 이자수입은 1조원 들어나 데 그쳐 순 이자부담이 5조6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

이 연구원은 "특히 저소득층은 금융자산보다 금융부채 쪽에서 보유 비중이 높고, 소득이 낮을수록 소비를 줄이는 경향이 더 강하다고 가정하면 금리 상승에 따른 이자부담 증가는 중·저소득층의 소비를 더 심각하게 위축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기아차 MPV '벤가'

독일 시승평가 1위

기아자동차의 다목적차량(MPV) '벤가'가 독일의 양대 자동차전문지로 꼽히는 아우토빌트(AutoBild)와 아우토모토운트스포트(Auto Motor und Sport)의 소형 MPV 비교시승 평가에서 1위를 차지했다.

기아차에 따르면 아우토빌트 최근호에 실린 소형 MPV 5개 차종의 비교시승 평가에서 벤가는 차체, 파워트레인, 편의성, 주행성능, 비용 등 5개 항목의 500점 만점 중 326점을 받아 준다. 제로스, 르노 그랜드 모도스, 뇌스 쿠페 등을 제치고 1위에 올랐다.

벤가는 아우토모토운트스포트 최근호의 소형 MPV 3개 차종 비교시승 평가에서도 최고 점수를 받았다.

/박정욱기자 jwpark@

美 컨소시엄 "대우건설 인수 재도전"

TR아메리카, 인수의향서 다시 제출

미국계 투자 컨소시엄인 TR아메리카가 대우건설 인수에 다시 도전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16일 "TR아메리카가 최근 대우건설 인수의향서를 다시 제출했다"며 "작년 하반기에 제출한 의향서 내용과 차이는 없다"고 말했다.

TR아메리카는 작년 하반기 금호아시아나그룹이 대우건설 매각을 추진할 때 자베스파트너스와 함께 공동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으나 투자

금 모집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인수 협상에 실패했다. TR아메리카는 당시 대우건설 지분 50%+1주를 주당 2만 원에 인수하는 방안을 제안했었다.

TR아메리카의 대우건설 투자단은 조만간 방한해 정부 관계자와 채권단 관계자들을 만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채권단 관계자는 "대우건설 투자를 원하는 투자자는 누구라도 제한 없이 만날 것"이라며 "우리의 매각 기준과 가격 등의 조건이 맞다면 매

각을 추진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금호아시아나그룹 채권단은 대우건설 재무적 투자자들이 아직까지 채권단이 제시한 출자전환 등의 대우건설 풋백옵션(주식 등을 퇴팔 수 있는 권리) 처리 방안에 대한 통의서를 제출하지 않아 금호그룹의 구조 조정과 대우건설 매각 작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지 못하고 있다.

채권단은 이번 주까지 재무적 투자자들로부터 정상화 방안에 대한 통의서를 받아야 한다는 계획이다. /연합뉴스



사진 왼쪽부터 김인해 KTDC 대표, 에드가르 키에크 마그나 오토텍 영업분야 부사장, 라우리아 살비토레 마그나 오토텍 기술분야 부사장, 박광태 광주시장, 김성봉 사단법인 광주금형산업진흥회장, 조철연 주식회사 에스디엠 대표.

/총행기자 redplane@

멕시코 금형업체 수주 상담차 광주 방문

박광태 시장은 16일, 광주금형 산업진흥회와 수주상담을 위해 광주를 방문한 멕시코 마그나 오토텍 기술분야 부사장을 면밀히 조사한 결과 10대 그룹 총수들은 지분을 보유한 12월 결산 상장사로부터 최소 1천393억2천 원을 대금으로 전달했다.

마그나 오토텍은 종업원 1천200명에 연 매출 3천억원 규모의 자동차 부품 생산하는 기업으로, 광주 지역 금형업체의 생산 실태를 파악하고 계약업무를 협의하기 위해 광주를 방문했다.

류 명예회장은 지난해 13억7천만원의 배당을 받았지만, 올해는 그룹 구조조정 회오리와 계열사 경영난으로 무배당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올 10대그룹 총수 주식 배당금

이건희 회장 386억 최고

박삼구 회장 제로배당 될듯

올해 10대 그룹 총수들이 상장사 지분 보유로 지급받을 배당금 총액이 1천4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벌닷컴이 17일 2009 회계연도 배당금 내역을 조사한 결과 10대 그룹 총수들은 지분을 보유한 12월 결산 상장사로부터 최소 1천393억2천 원을 110주를 보유 중이다.

정몽구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은 작년 288억7천만원보다 40억2천만원(13.9%) 늘어난 328억9천만원으로 뛰어들었다.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으로 귀국한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이

385억9천만원의 배당금으로 10대 총수 가운데 1위를 차지했다.

206억9천만원보다 125억원(47.9%)이나 뛰었다.

이 전 회장은 배당일 기준으로 삼성전자 498만5천464주, 삼성전자 우선주 1만2천398주, 삼성물산 220만6천110주를 보유 중이다.

정몽구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은 작년 13억7천만원으로 뛰어들었으나 206억9천만원보다 125억원(47.9%)이나 뛰었다.

이 전 회장은 배당일 기준으로 삼성전자 498만5천464주, 삼성전자 우선주 1만2천398주, 삼성물산 220만6천110주를 보유 중이다.

정몽구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은 작년 13억7천만원으로 뛰어들었으나 206억9천만원보다 125억원(47.9%)이나 뛰었다.

이 전 회장은 배당일 기준으로 삼성전자 498만5천464주, 삼성전자 우선주 1만2천398주, 삼성물산 220만6천110주를 보유 중이다.

※수치는 전일 종가 기준

▲ 코스피지수 1,601.05 (+7.39)
▲ 코스닥지수 508.95 (+5.07)

금리 (국고채 3년) 4.12%
원·달러 환율 1,151.50원 (+0.20)

● 코스피지수 1,601.05 (+7.39)
● 코스닥지수 508.95 (+5.07)

금리 (국고채 3년) 4.12%
원·달러 환율 1,151.50원 (+0.20)

● 코스피지수 1,601.05 (+7.39)
● 코스닥지수 508.95 (+5.07)

금리 (국고채 3년) 4.12%
원·달러 환율 1,151.50원 (+0.20)

● 코스피지수 1,601.05 (+7.39)
● 코스닥지수 508.95 (+5.07)

금리 (국고채 3년) 4.12%
원·달러 환율 1,151.50원 (+0.20)

